

### 수능날이 '교육 축제의 장' 되길 꿈꾸며...



해마다 찾아오던 임시한과가 추후했던 지난 13일, 전국 58만 수험생이 고사장을 찾아 기나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습니다. 공부 인생의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비뚤어진 우리나라 교육체제 속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날은 삶의 전부인 것처럼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날씨가 포근했다고 해도 꿈꿨던 가슴만은 여지 하지 못했을 수험생들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응원부대가 총 출동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대성여고 앞에 포진한 응원부대는 멋진 율동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응원 명단(?)을 차치 하기 위해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1주일 전부터 응원을 준비했다는 이 학생들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 윈더걸스의 '노바디(Nobody)' 노래에 맞춰 환상의 율동을 선보여 얼어 있던 고사장 분위기를 녹였습니다.

이 학생들도 내년이면 후배의 응원을 받는 수험생 입장이 되겠지만 사진 속 밝은 표정과 모습이 한결 같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수능날이 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골짜기 아니라 그동안의 교육 성과를 가늠하고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교육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잣대에 따라 똑같은 미래로 나아가는 획일화 된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꿈나무들이 각기 다른 모습과 개성,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굳은 표정으로 고사장 문을 들어서던 수험생들도 응원단과 어울려 환한 표정으로 당당히 교문을 들어설 수 있는, 발전된 교육 미래를 생각해봅시다.

▶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통했다.

한 냉소적인 여자가 모임에 갔다가 플레이보이로 소문난 남자의 옆에 앉게 됐다. 여자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얘기를 몇 마디 나누고선 그를 향해 냉담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서로 통하는 게 전혀 없군요!”

그러자 플레이보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물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러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무슨 질문인데요?”

그러자 플레이보이가 물었다.

“만약 침대가 딱 두 개 있는 방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데 한쪽에는 여자가, 다른 한쪽에는 남자가 누워 있다면 어느 쪽에 가서 주무시겠어요?”

그러자 여자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무슨 질문이에요? 당연히 여자랑 자죠!”

그녀의 대답에 플레이보이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우리 통하는 게 있다니깐요! 저도 항상 여자 쪽에 가서 잠을 자거든요.”

#### ▲적반하장

20명의 친구와 소풍을 간 학생이 길을 잃었다가 일행을 만났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러자 그 학생이 대답했다.

“화내지마. 나는 20명을 모두 잃었었다고!”

#### ▲할아버지의 서울 구경

시골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서울 구경을 하러 갔다. 길거리에서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본 할머니가 놀라서 한마디 했다.

“아이고 세상에, 나 같은데 저런 꼴 하고는 밖에 나오지 않았구먼!”

그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입자가 저 정도면 나 역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었구먼...”

#### ▲점점 중

매일 밤늦게 까지 야근을 하며 일을 하는 일발레로 소문이 난 변호사가 있었다. 하루는 이 변호사가 몸이 안 좋아 병원을 찾았다.

“심각한 상태입니까?”

“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시고 이번 주 내내 쉬도록 하세요.”

“그건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일을 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큰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내 말을 들으세요.”

마지막에 변호사는 일주일 휴가를 내줬노라고 하고 병원을 나섰다. 며칠 뒤 변호사의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변호사님 자리에 있나요?”

“아니요. 몸이 안좋으셔서 이번 주 내내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아 그럼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아 네 변호사의 주치의입니다.”

#### ▲서툰 초등학교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7살 짜리 꼬마가 신발주머니를 학교에 놓고 집에 왔다.

“왜 신발주머니를 챙겨 오지 않았어?”

“아, 깜빡 했어요.”

다음 날도 아이는 신발 주머니를 챙겨오지 않았다.

“또 주머니를 챙겨오지 않은거야?”

그런데 다음 날 아이가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말했다.

“엄마! 오늘은 신발주머니 들고 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되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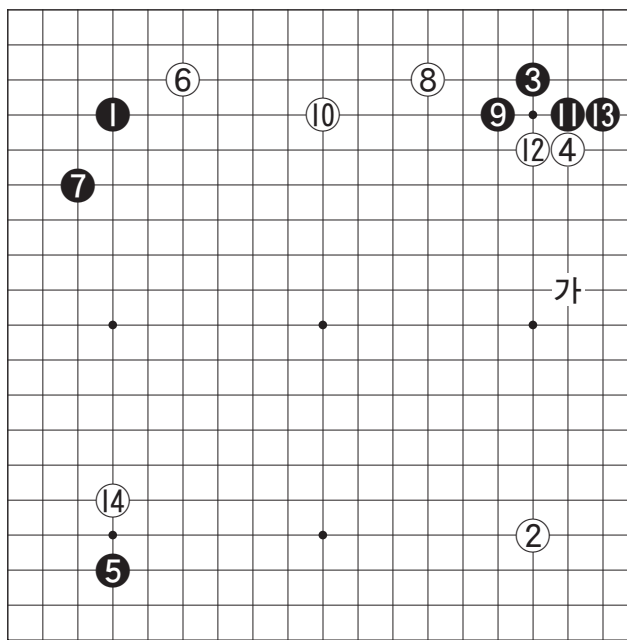
“그래? 아주 잘했구나. 그런데 애야 책가방은 어딴니?”

###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 경기도의 독주시대

학생부 결승전 1보 (1~14)

白 이대권      黑 양승하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번까지 다섯번째 참가하고 있는 전국체전에서 바둑종목은 아직까지 정식종목이 되지 못하고 전시종목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게 되는 아시안 게임에 이미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는 정식종목으로 참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바둑은 학생부의 결승전으로 전 종목을 휩쓸다시피 하며 종합우승이 확실한 경기도의 양승하 군과 다크호스인 인천광역시의 이대권 군이 금메달을 놓고 겨루게 되었다.

경기도는 일산과 분당 등의 바둑도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관계로 어린이부와 학생부

등에서 타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유일한 적수가 될 것으로 생각되던 서울특별시마저 몇 년째 경기도의 위세에 눌려 힘을 못쓰고 있어 당분간은 경기도의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대권 군이 빈 귀를 버려두고 대뜸 백 4로 걸쳐간 수가 상대의 의표를 찌른 수로 의욕 식민하다.

흑 13 다음 14로는 우변에 '가'로 벌리는가 했으나 이대권 군은 바빠서 걸쳐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 리빙 센스

#### 감자수프 만들기



〈재료〉 감자(200g), 양파 1/3개, 물 1컵, 우유 1컵, 버터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생크림, 치즈

1. 감자와 양파는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썰어놓는다.
2. 달군 팬에 버터를 녹인 다음 감자와 양파를 넣고 볶아준다.
3. 감자와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물 1컵을 넣고 끓여준다. 물 대신 닭 육수를 넣어도 좋다.
4. 감자가 부드럽게 익으면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준다.
5. 냄비에 갈아놓은 재료를 넣고 우유를 부어서 끓이다가 농도가 적당해지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입맛에 따라 생크림이나 치즈를 넣어 끓여 먹는다.

###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1월 18일(음 10월 21일 壬戌)

子	36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다. 48년생 어려움은 잠시 일뿐이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60년생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라 작은 것에 기쁨이 있다. 72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행해라. 84년생 계속 전진하면 좋은 길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22, 26
丑	37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이해가 된다. 49년생 친구는 언제든 반가우니 친구를 찾아보라. 61년생 걱정은 걱정을 하는 자만 갖는다. 73년생 가정불화가 있다. 서로 서로 양보하라. 85년생 구슬수가 타인으로부터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1, 27
寅	38년생 오늘은 안전운전을 해야 하리라. 50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라 일석이조가 있으리라. 62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신사를 계획하라. 74년생 인성은 연줄이다 멋지게 보내라. 행운의 숫자: 18, 30
卯	39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51년생 꿈을 크게 갖고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보인다. 63년생 은식술이 평안하다. 75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14, 33
辰	40년생 집 안과 밖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 52년생 지혜롭게 지내고 정돈을 걸으면 마음은 밝아진다. 64년생 돈이 생기니 바로 쓸 구멍이 생긴다. 76년생 수하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20, 28
巳	41년생 알뜰살뜰 지내면 나간 돈을 불러들인다. 53년생 나쁜 일이 찾아 다닌다. 주의해야 할 것이다. 65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77년생 인덕을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12, 35
午	42년생 식복이 넘치니 조심은 해야 할 것이다. 54년생 멀리 간 친구에게서 소식이 온다. 66년생 새 문서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8년생 과거가 문제를 가져 올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01, 45
未	43년생 듣기 좋은 말은 듣지 마라 주의하여 들으라. 55년생 다투면 손해 양보하면 득이 된다. 67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7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사투르브 살펴라. 행운의 숫자: 02, 44
申	44년생 자녀의 주변도 살펴봐라.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다. 56년생 돈다수를 잘하면 걱정은 없다. 68년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마음이 현란하다. 80년생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이다. 행운의 숫자: 23, 25
酉	45년생 편안한 하루나 큰 득은 없다. 57년생 결정은 내일로. 손해가 보인다. 69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81년생 초고후안 처음은 고생이었으나 나중은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03, 43
戌	46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리라. 58년생 마음을 비우고 지내면 재워지리라. 70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선친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라. 82년생 마음이 갈광질광 이다. 심신의 안정을 찾아야 할 터. 행운의 숫자: 24, 16
亥	47년생 활기찬 하루이니 용기 백배 하리라. 59년생 가까운 이웃과 좋은 하루를 보내면 길사가 생길 수다. 71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라 어려운 일도 풀리리라. 83년생 좋은 옷 입고 즐거운 날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17, 31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p>굿모닝 잉글리쉬 &lt;1191&gt;</p> <p>Can you believe it? 믿어주세요?</p> <p>A: Are you still working on that dress for the wedding? B: Yep. Can you believe it? A: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on that dress? B: It's been 3 months now.</p> <p>A: 아직도 그 웨딩복을 만들고 있나요? B: 그럼요. 믿어주세요? A: 그 드레스 제작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고 있나요? B: 지금까지 3개월이 됩니다.</p> <p>* work on ~ = ~을 작업하다, 처리하다 * 소풍을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 How long have you been shopping?</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lt;1191&gt;</p> <p>あっち行(い)けよ. 저리 가.</p> <p>A: 先生に怒(おこ)られたのか. B: あ~, 作文(さくぶん)の内容(ないよう)が単純(たんじゆん)すぎるって、もう一度(いちど)書(か)き直(なお)せて. A: どれどれ, 見(み)せてみるよ, 何(なん)だ, この字(じ)汚(きた)いな. B: 大(おお)きな世話(せわ)だよ, あっち行(い)けよ.</p> <p>A: 선생님에게 혼났어? B: 아~, 작문 내용이 너무 단순하대. 다시 써 오라셨어. A: 어디 어디 보여줘 봐. 뭐야, 글자가 지저분하잖아. B: 쓸데없는 참견 말고, 저리 가.</p> <p>怒(おこ)られた: 혼났다 單純(たんじゆん)すぎる: 너무 단순하다 大(おお)きな世話(せわ)だ: 쓸데없는 참견이다</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 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워 &lt;268&gt;</p> <p>祝你生日快乐. 생일 축하합니다.</p> <p>A: 祝你生日快乐. zhù nǐ shēng rì kuài lè 주 니 생일 축하하러 B: 你送我什么礼物? nǐ sòng wǒ shénme lǐ wù 니 생일 선물 뭐니 A: 我唱个生日歌. wǒ chàng ge shēng rì gē 워 흥겨울래 B: 好, 唱吧. hǎo chàng ba 아오 흥겨워</p> <p>A: 생일 축하합니다. B: 너는 무슨 선물을 줄거니? A: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게요. B: 좋아. 불러봐.</p> <p>唱 [chàng] 노래를 부르다 歌 [gē] 노래</p> <p>〈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p>	<p>한자 이야기 &lt;908&gt;</p> <p>季札繫劍 (계찰계검) 골 계, 표찰, 매킨, 칼 검</p> <p>계찰계검(季札繫劍)은 오(吳)나라 왕 수몽(壽夢)의 막내아들인 계찰(季札)이 검을 걸어 놓는다는 뜻으로, 신의(信義)를 중시함을 비유한다.</p> <p>계찰은 부귀란 가을바람이 꽃가를 스쳐지나가는 것(秋風過耳)과 같다면서, 오나라 왕위를 거절하였던 인물이다. 그런 계찰이 처음 중원(中原)지역으로 사신 갈 때, 도중에 서(徐)나라의 왕을 알현하였다. 서나라 왕은 계찰의 보검(寶劍)이 마음에 들었으나 감히 입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계찰은 속으로 그의 뜻을 알아차렸지만 자신의 자격으로 중원의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며 하였기 때문에 검을 그에게 주지 못하였다. 계찰이 돌아오는 길에 서나라에 도착해보니 서나라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에 계찰은 보검을 풀어 무덤가 나무에 걸어놓고 떠났다. 수행원이 그 이유를 묻자 계찰은 '나는 처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이 칼을 그에게 주려고 결심하였는데, 그가 죽었다고 해서 어찌 나의 뜻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초학서인 '몽구(蒙求)'에도 '계찰계검(季札繫劍)'으로 실려 있다. (史記, 吳太伯世家)</p> <p>〈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